

●문화재청공고제2012-21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4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8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보물 지정 예고 대상 : 4건

-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
-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delphoi@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사유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陝川 海印寺 法寶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및 腹藏遺物)

- 지정현황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1호(1972.2.12.)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32-13
- 수 량 : 불상 1구, 복장유물 일괄(66건 148점)
- 규 격 : 높이 126.0cm, 어깨 폭 64.0cm, 무릎 폭 97.3cm
- 재 질 : 목조(향나무)
- 형 식 : 지권인의 좌상
- 제작연대 : 통일신라 말 ~ 고려 초
- 사 유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통일신라 말 ~ 고려 초에 제작된 목조불상으로 1m가 넘는 크기에, 조형성은 물론 조각적인 완성도까지 갖춘 작품이다.

동글동글한 나발, 이상화된 얼굴과 당당한 신체 표현, 신체에 감기듯 팽팽하게 걸쳐 입은 편단우견

의 착의형식과 더불어 치켜세운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 권 지권인의 형태, 긴장감 넘치게 조각된 옷 주름 등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제작된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비교될 수 있다.

복장유물로는 다라니, 발원문 그리고 후령통 등 여러 종류의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대부분은 1167년 경과 1490년의 중수 때 납입된 것이다. 특히 1490년에 납입된 후령통은 안립 절차에 입각하여 정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 『조상경(造像經)』이 간행되기 이전에 이미 복장의식이 정립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사씨(史氏) 일가에 의해 납입된 반야심경의 발원문은 1167년(고려 의종 21)에 불상에 대한 중수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자료여서 이 불상의 하한연대 결정에 결정적인 자료이다. 이 밖에 1150년, 1156년, 1166년에 각기 판각한 『대비로자나성불경등일대성교중무상일승제경소설일체다라니(大毗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가 발견되었다.

복장물 가운데 3점의 조각보는 조선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우리나라 조각보의 역사가 500년 이상 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저고리는 조선 초기의 홀저고리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후령통 내부의 오보병은 그 구성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 독특한 방식을 갖추고 있어 직물사와 복장물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법보전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중화(中和) 3년(883)’ 이두문(吏讀文)의 묵서(우: 서원 대각간주등신사미 우좌비주등신? 誓願 大角干主燈身賜彌 右座妃主燈身?/ 좌: 중화삼년계묘차상하절칠금착성 中和三年癸卯此像夏節柒金着成)는 제작 이후 여러차례 중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해석과 기록한 시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으나 불상의 양식적 특징과 복장유물의 가치로 볼 때 국가 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

(陝川 海印寺 法寶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腹藏典籍)

- 지정현황 :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32-13
- 수 량 : 2건 2점
- 재 질 : 종이
- 제작연대 : 12세기

목록 번호	명칭	수량	판종	연대	크기
1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1첩	목판	12세기	26.3×14.1cm
2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16~20(大方廣佛華嚴經 晋本 卷16~20)	1책	목판	12세기	31.8×20.8cm
소계		2건 2점			

○ 사 유

1.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이 경전은 당(唐) 현장법사(玄奘法師)가 번역한 『반야바라밀다심경』이 전체 4면의 절첩장 형식으로 되어 있다. 상하간 19.7cm, 무계(無界), 1면은 6행 16자, 2~4면은 5행 16자이며, 표지 제첩은 10.5×3.3cm의 크기에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이라고 먹으로 쓰여 있다.

권말제(卷末題) 다음에 “伏爲先伯父尙書工部侍郎史禕 往生西方見佛聞法之願 印成 時丁亥九月日 奉三寶弟子國子進士史謙光誌”(삼가 돌아가신 백부이신 상서공부시랑 사위[尙書工部侍郎 史禕]가 서방[西方, 극락정토]에 왕생하여 불법을 듣게 되기를 기원하여 <이 경을> 인출한다. 때는 정해년 9월 모일이다. 삼보[三寶]를 받드는 제자[佛弟子]이며 국자감 진사인 사겸광은 쓴다.) 라는 주필(朱筆)로 쓴 지문(誌文)이 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경력을 지낸 인물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지문에 보이는 사위(史禕)는 문공유(文公裕: ? ~ 1159)의 묘지명을 쓴 사위(史偉, 검교태자대보 승무낭 향시상서공부시랑[檢校太子大保 承務郎 行試尙書工部侍郎]을 역임)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이 맞다면 이 지문은 1159년과 가까운 정해년인 1167년(고려 의종 21)으로 추정되고, 이 『반야심경』은 12세기에 판각 인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복장 유물의 시대를 추정할 때에도 이 지문은 중요한 자료이다.

2.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16~20(大方廣佛華嚴經 晉本 권16~20)

이 경전은 동진(東晉)의 불타발다라(佛跋陀羅)가 번역한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60권 중 권16~20의 잔본 1책이며 호접장본(蝴蝶裝本)이다. 상하단변(上下單邊), 좌우쌍변(左右雙邊)에 반곽(半郭) 24.5×15.8cm, 무계(無界)이며, 반엽이 17행 34자로 된 소자본(小字本) 화엄경이다. 판심에는 ‘진 십육(晉 十六)’, 권차(卷次), 장차(張次) 순으로 되어 있으며, 표지가 없고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거란본(契丹本) 계통의 번각본으로서 함차(函次)의 표기가 없는 점에서 사찰본으로 추정되는 귀중본이다.

□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陝川 海印寺 大寂光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및 腹藏遺物)

- 지정현황 :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32-13
- 수량 : 불상 1구, 복장유물 일괄(69건 304점)
- 규격 : 높이 125.0cm, 어깨 폭 63.5cm, 무릎 폭 95.5cm
- 재질 : 목조(향나무)
- 형식 : 지권인의 좌상
- 제작연대 : 고려(1167년 이전)
- 사유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해인사 범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크거나 착의법 그리고 표현양식이 거의 동일하여 시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여겨진다. 다만 세부적인 표현과 제작(속파기) 기법 상의 미세한 차이, 과학적 분석 결과 등을 참고할 때, 범보전의 상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다만 1167년을 하한으로 볼 수 있는 발원문이 복장에서 발견되어 이 불상이 늦어도 고려 1167년 이전에 제작된 상임을 알 수 있다.

1167년 이 지역 유력 세력이었던 사씨(史氏)와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중수, 고려 14세기 후반에 화살 명장(名匠) 송부개(宋夫介)의 중수 참여, 그리고 1490년 조선 왕실 주도로 이루어진 개금중수 사실만으로도 한국조각사에서 중요한 불상이다.

또한 이 불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은 현재까지 불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 중 최대·최고 수준이다. 범보전과 동일한 내용의 발원문 2매 외에도 17종의 다라니가 확인되었다.

이 밖에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에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섬유류 유물이 함께 복장되었다. 고려시대의 유물로는 요선철릭((腰線帖裏, 허리에 선장식이 있는 철릭), 답호(搭襖), 저고리, 사경낭(寫經囊), 주머니, 직물 편 등 12점이 있으며, 조선시대의 것은 1490년에 납입된 것으로 저고리를 비롯하여 보자기, 오색후혈장엄(五色喉穴藏嚴)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현전하는 고려시대 복식 유물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복장유물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요선철릭이나 답호 등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더불어 1490년에 납입된 홀저고리는 조선 초기의 저고리 유형을 알 수 있어 그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복장유물도 불상과 함께 일괄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충분하다.

□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

(陝川 海印寺 大寂光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腹藏典籍)

- 지정현황 :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32-13
- 수량 : 8건 37점
- 재질 : 종이
- 제작연대 : 12~14세기

목록번호	명칭	수량	판종	연대	크기
1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51~57(大方廣佛華嚴經 晋本 卷51~57)	1책	목판	12세기	30.2×18.5cm
2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1~권10(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1~卷10)	1책	목판	12세기	30.2×18.7cm
3	금광명경 권3(金光明經 卷3)	1축	목판	12세기	29×57.2cm (장 크기)
4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1첩	목판	12세기	26×11.6cm
5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1축	목판	12세기	26.6×49.5cm, (장 크기)
6	초조본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初彫本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30축	목판	12~13세기	26.9×46.8cm. (장 크기)
7	백지묵서사경(白紙墨書寫經)	1축	필서 (筆書)	12~13세기	14×324.4cm
8	감지금니문수최상승무생계법(紺紙金泥文殊最上乘無生戒法)	1첩	필서 (筆書)	1326년 (고려 충숙왕 13)	8.3×6.4cm
소계		8건 37점			

○ 사 유

1.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51~57(大方廣佛華嚴經 晋本 卷51~57)

이 불경은 동진(東晋)의 불타발다라(佛跋跋陀羅)가 번역한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60권 중 권51~57의 잔본 1책(56장)이며 호접장본(蝴蝶裝本)이다. 상하단변(上下單邊), 좌우쌍변(左右雙邊)에 반곽(半郭) 24.5×15.8cm, 무계(無界)이며, 반엽의 행자수는 17행 34자, 판심에는 ‘진 제오십일(晋第五十一)’, 권차(卷次), 장차(張次) 순으로 되어 있으며, 표지는 없고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한 줄에 34자가 배자된 소자본(小字本)으로 거란본(契丹本) 계열의 판본을 저본으로 판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희귀한 책이다.

2.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1~권10(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1~卷10)

이 경은 반야(般若)가 번역한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40권 중 권1~10의 잔본 1책(67장)이며

호접장본(蝴蝶裝本)이다. 상하단변(上下單邊), 좌우쌍변(左右雙邊)에 반곽(半郭) 23.9×15.6cm, 무게(無界)이며, 한 면에 17행 34자 기준으로 대체로 정교하게 판각되어 있다. 관심에는 ‘정 제일(貞第一)’, 권차(卷次), 장차(張次) 순으로 되어 있으며, 표지가 없고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한 줄에 34자가 배자된 소자본(小字本)으로 거란본(契丹本) 계열의 판본을 저본으로 판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희귀한 책이다. 권수제 다음 행에는 역자가 표시되어 있다.

3. 금광명경 권3(金光明經 卷3)

이 『금광명경』은 담무참(曇無讖)이 번역한 전4권 19품 가운데 권3에 해당되며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과 더불어 호국신앙의 중요한 경전으로 받아들여져 금광명경도량이나 금광명법회의 소의경전(所衣經典)이 되었다.

권두에는 ‘금광명경 권제삼(金光明經 卷第三)’의 권수제에 이어 ‘북량삼장법사 담무참 역(北涼三藏法師 曇無讖 譯)’의 역자가 있다. 본문은 ‘금광명경지귀신품제십(金光明經脂鬼神品第十)’으로 경명과 품차를 이어서 1행으로 표기하였다. 수록된 내용은 「귀신품」(鬼神品, 10품), 「정론품」(正論品, 11품), 「선집품」(善集品, 12품), 「귀신품」(鬼神品, 13품), 「수기품」(授記品, 14품), 「제병품」(除病品, 15품)으로 되어 있다. 1장의 크기는 29×57.2cm이며, 상하간 21.9~22.2cm, 무게(無界)이며, 전엽은 25행 17자이다. 관수에는 ‘금삼(金三)’과 장차(張次)가 ‘십칠(十七)’이라 표시되어 있어 전체가 17장이 연결되어 있다. 하단부가 일부 훼손되었고 인쇄도 흐리게 된 부분도 많고 마지막 장은 인출 시 위 변란이 잘려서 인쇄 되었다. 권자본 형태이나 앞·뒤에 축이 없어 복장용으로 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판본은 12세기에 간행된 사간본(寺刊本)으로 추정되며 전본(傳本)이 많지 않은 희귀본이다.

4.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이 경전은 당(唐) 현장법사(玄奘法師)가 번역한 반야심경으로 전체 4면이 절첩장 형식으로 되어 있다. 상하간 19.7cm, 무게이며, 1면 6행 16자, 2~4면은 5행 16자이다. 표지의 제첩은 10.5×3.3cm의 크기에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이라 먹으로 쓰여 있고 결락이 없는 완전한 판으로 권말제(卷末題) 다음에 “特爲親父無病長生之願 印成 丁亥九月日 弟子國子學生史柔直 誌”(특별히 친부의 무병장생을 기원하여 <이 경을> 인쇄한다. 정해년 9월 모일에 불제자 국자감학생 사유직은 쓴다.) 라는 지기(識記)의 묵서(墨書)가 있다. 이 지문은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불복에서 수습된 같은 반야심경(般若心經)의 권말제 다음에 “伏爲先伯父尙書工部侍郎史禕 往生西方見佛聞法之願 印成 時丁亥九月日 奉三寶弟子國子進士史謙光誌”(삼가 돌아가신 백부이신 상서공부시랑 사위가 西方(극락정토)에 왕생하여 불법을 듣게 되기를 기원하여 <이 경을> 인쇄한다. 때는 정해년 9월 모일이다. 삼보[三寶]를 받드는 제자[佛弟子]이며 국자감 진사인 사겸광은 쓴다.) 라는 주필(朱筆)로 쓴 지문과 함께, 이 두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복장에 갈무리된 유물과 그 시기를 판단하는데 주요한 자료가 된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경력을 지낸 인물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지문에 보이는 사위(史禕)는 문공유(文公裕: ? ~ 1159)의 묘지명을 쓴 사위(史偉, 검교태자대보 승무낭 항시상서공부시랑[檢校太子大保 承務郎 行試尙書工部侍郎]을 역임)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이 맞다면 이 지문은 1159년과 가까운 정해년인 1167년(고려 의종 21)으로 추정되고, 이 반야심경은 12세기에 판각 인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복장 유물의 시대를 추정할 때에도 이 지문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5.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이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은 현장(玄奘)이 번역한 경전으로 『약사경』으로 약칭한다. 권두에는 변상도가 있는데 앞부분 일부는 결락되었으며, 1장의 크기는 26.6×49.5cm로 15장이 연결되었다. 상하단변에 상하간 22.2cm, 무게(無界), 전엽(全葉) 1장은 23행 15자, 2장~15장은 24행 15자이며, 관수제는 ‘약사경(藥師經)’, 장차는 ‘제일장(第一張)~제십오장(第十五張)’으로 되었다. 권미제 끝에 진언이 있으며, 축 없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다.

인출시기는 12~13세기 경으로 추정되며, 『초조대장경(初彫大藏經)』에 수록된 판과는 달리 함차(函次) 표시는 없고, 권수에 변상도가 있는 사간판으로 매우 희귀한 판본에 속한다.

6. 초조본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初雕本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이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은 삼장법사 현장(三藏法師 玄奘)이 번역한 경전으로 초조대장경이다. 1장의 크기는 26.9×46.8cm, 상하단변에 상하간 22.2cm, 무계이며, 전엽 첫 장은 23행 14자, 그 이하 장은 24행 14자로 되어 있다. 권수제 아래에 ‘공(恭)’의 함차 표시가 있으며 판심에는 ‘약사본원공덕경(藥師本願功德經)’에 이어 장차, 함차 순으로 되어 있으며 권미제 없이 장차는 16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초조본의 장차표시인 ‘장(丈)’이 15장에서는 ‘장(張)’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4장 7행 13자는 송태조 조부(宋太祖 祖父)의 휘(諱)인 검피자 ‘경(竟)’과 12장 23행 12자 ‘경(敬)’의 마지막 획이 탈락되어 피휘결획(避諱缺劃)이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앞에는 표죽(標竹), 뒤에는 축을 달아 권자본 형식으로 장정을 갖추는데 장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복장용으로 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修道)’의 목서가 있는데 시주자명으로 보인다. 인쇄가 흐리게 된 것도 많고 인출 시 위 아래 변란이 인쇄가 안 된 부분도 있으며, 지질도 얇고 두꺼운 여러 종류로 나타나 혼용하여 연결하였다.

처음 알려진 귀중한 판본으로 52축이나 되는 다량이 수습되었다. 다만 불복장용(佛腹藏用)으로 인출한 때문인지, 인출 시의 결락과 낙장이 있는 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52축 중에서 대표성을 갖는 훼손이 없는 판본만을 선정하여 지정대상으로 하였다.

7. 『백지묵서사경(白紙墨書寫經)』

앞부분의 결락이 있다. 남아있는 첫 장은 14×42.9cm, 2장부터 9장까지는 14×281.5cm로 모두 9장이 연결되어 있으며, 장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두루마리 형태이다. 무계(無界)이며, 행자수는 일정하지 않다. 중간에서 후반부에 걸쳐 『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가 필서되어 있다. 내용을 규기(窺基)의 『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와 대조해 보면, 규기의 소를 초기(抄記)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본문에서 “소아미타소 서경현법사행진 법사 조(小阿彌陀疏 西京玄法寺行眞 法師 造)”라고 밝히고 있어서 본 소의 저자와 관련하여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경이다. 그러나 일반 사경과는 달리 초서(草書)로 쓰여 있는 점에서 누군가 참고용으로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8. 감지금니문수최상승무생계법(紺紙金泥文殊寂上乘無生戒法)

인도 출신 승려로 중국을 거쳐 고려에 입국한 지공(指空)이, 자신이 번역한 『문수최상승무생계경(文殊寂上乘無生戒經)』의 내용을 바탕으로 1326년(고려 충숙왕 13)에 지켜야 할 계율의 내용을 제자 각경(覺慶)에게 감지(紺紙)에 금니(金泥)로 써서 준 계첩(戒牒)이다. 표지는 금은니(金銀泥)의 보상화문으로 장식되었고, 8.2×6.3cm의 소형 절첩장본이다. 매장 6행이며 1행에 11~12자로 필사되었으며, 1~2면은 변상도(7.2×12.5cm)가 있고 이어 본문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무생계(無生戒)의 실천 지침서 내용을 실고 있다. 서문, 사귀의(四歸依), 육대서원(六大誓願), 최상승무생계(寂上乘無生戒), 원문(願文)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원문 끝에는 ‘태정삼년팔월일 수지제자각경(泰定三年八月日 受持弟子覺慶)’이라 적고 다시 ‘여래유교제자전수일승계법서천선사 지공(如來遺教弟子傳授一乘戒法西天禪師 指空)’과 함께 범서(梵書)의 수결(手決)이 있다. 이 가운데 ‘여래유교제자전수일승계법서천선사(如來遺教弟子傳授一乘戒法西天禪師)’와 ‘수지제자각경(受持弟子覺慶)’ 및 ‘지공(指空)’은 본문의 서체와는 다르다. 완전본으로 보존상태도 양호하며 계첩을 넣었던 비단주머니도 함께 발견되었다.

받은 이의 이름을 붙여 『각경계첩(覺慶戒牒)』이라고도 한다. 현전하는 고려시대의 계첩은 몇 건에 불과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18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34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